

주의력 결핍 과잉활동(ADHD) 아동의 과제수행에 대한 기대와 귀인양식

김 소 라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주의력 결핍 과잉활동(ADHD) 아동의 학업손상, 학업적 부적응과 관련된 우울감, 수행에 대한 기대, 부적응적인 귀인양식, 귀인의 일관성 등을 정상아동들과 비교해 보았다. 단축형 Conners 평가척도 (ACRS) 17점 이상을 기준으로 ADHD 집단을 선정하고, 비교집단은 10점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되었다. 실험과제는 아동용 개인지능검사 (KEDI-WISC)의 차례맞추기 소검사를 사용하였고, 과제수행 후 이에 대한 귀인을 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ADHD 집단은 정상집단보다 더 높은 우울을 보고하였다. 과제수행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두 집단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예상기대수와 실제점수와의 차이에 있어서 ADHD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우울점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 정상집단이 ADHD 집단보다 성공을 능력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ADHD 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실패를 능력부족과 노력부족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귀인의 일관성에 있어서 ADHD 집단은 실패결과를 '운'과 같이 불안정하고 특수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향성이 재귀인에서 줄어든 반면, 정상집단은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ADHD 아동들이 자신의 수행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귀인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유사한 인지적 편파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울집단과는 달리 그들이 나타내는 부정적 귀인편파는 조직화되어 있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ADHD 아동은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경계 (vigilance)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충동성으로 인하여 과제에 대해 빨리, 부적절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과제나 상황적 요구에 비추어 활동수준을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상의 특징을 나타낸다 (Milich & Landau, 1982). 저조한 학습수행

은 과잉활동을 보이는 아동들중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인데, McGee & Share(1988)는 과잉활동성이 선천적인 주의력 결핍이나 지능결함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학업결손에서 오는 동기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Butkowsky와 Willows (1980)는 성공과 실패에 대

한 귀인은 성공에 대한 기대, 과제지속성 등과 같은 성취와 관련된 인지, 행동을 중재한다고 보았다. 즉 학습상황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아동은 자신을 덜 유능하게 지각하고, 타인에 의해서도 그렇게 지각된다고 믿는다.

Milich, Carlson, Pelham과 Licht (1991)의 연구에서 ADHD아동들은 특히 학업과 관련된 과제에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쉽게 포기하는 특징을 나타내 보였으며, 실패를 경험한 뒤에 노력을 덜 투자하고 실패결과에 대해서는 능력부족으로 귀인시켰다.

ADHD 아동들은 저조한 학업성적, 유급 등의 학업 영역에서 반복적인 실패경험을 하면서 무기력한 반응양식을 보이게 되는데, 정상집단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더 쉽게 좌절감을 보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정상통제집단보다 앞으로의 수행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Milich & Okazaki, 1991). Hoza, Pelham, Milich, Pillow와 McBride (1993)는 ADHD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함께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Biederman, Newcorn & Sprich, 1991; Lahey & McBurnett, 1992)를 토대로 우울한 아동들이 드러내 보이는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ADHD 아동집단에서 확인하였다. 한편, ADHD 아동은 자기지각에 있어서 정상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자신의 학업실패나 또래거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보고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자기지각을 나타내었다.

Cantwell (1987)은 ADHD 아동이 학교에서만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고, 다른 기능영역에서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에 대해 "demoralization syndrome"의 개념을 빌어 설명하였고, ADHD 아동들이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기보고 측정치상에서 정확한 자기보고를 할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HD 아동들은 반복적인 학습수행의 실패로 인해 학업상의 부적응과 우울을 경험하고, 그와 더불어 파생되는 무기력한 귀인양식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키고 반복적으로 학업성취에 있어서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학업손상, 학업적

부적응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확인하고 정상아동과 비교해봄으로써 앞으로의 학습수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지적-동기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ADHD 아동들이 무기력감, 부적절감 등으로 인해 정상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더 우울하기는 하나, 이러한 우울이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이 ADHD 아동들에게서도 발견되는지에 중점을 두려 한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우울증상이 아니더라도 과제수행과 관련된 귀인양식에서 정상집단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이들의 학업상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학습, 정서적 부적응의 이차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인지적 훈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아래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가설 1. ADHD 집단은 정상집단보다 예상된 수행과 실제수행과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가설 2. ADHD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2-1 ADHD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외적인 차원에서 귀인할 것이다.

가설 2-2 ADHD 집단은 실패결과에 대해서 내적인 차원에서 귀인할 것이다.

가설 3. ADHD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귀인의 일관성이 부족할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 성남의 3개 초등학교 남자아동 중 5-6학년 470명을 대상으로 단축형 Conners 척도를 사용하여, 주의가 산만하고 과활동적이며 충동적인 성

향이 두드러진 남아아동 40명과 통제집단으로서 정상아동 40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본 연구의 종속측정치인 귀인질문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인지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DHD 증상을 보이는 여자아동은 그 수가 적고, 정서적인 문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절차

첫째, 교사에게 문제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ACRS (단축형 Conners 척도)를 작성토록 하여, 17점 (평균 + 2SD 이상)을 기준으로 ADHD 집단을 42명을 선별하고, 10점 미만의 아동 중 무작위로 41명을 정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이들 중 아동용 개인지능 검사(KEDI-WISC)에서 70점 미만을 받은 아동 3명 (ADHD 집단 2명, 정상집단 1명)을 제외시켰다.

셋째,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 피험자로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우울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기보고 측정치인 '아동 우울 검사지'를 실시하였다.

넷째, 피험자로 선정된 아동들은 방과 후에 남도록 하여 한 교실에서 10명씩 단체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과제는 KEDI-WISC의 차례 맞추기 소검사의 원판을 400% 확대복사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용 지능검사로 피험자들에게 이미 한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친숙성으로 인해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제한 시간을 평균 29초 정도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난이도를 높여 사용하였다. 실제 지능검사를 실시할 때와는 달리 실험과제는 단체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시간별 가산점수는 없었다. 차례맞추기 소검사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10개 (3번부터 12번까지)만 사용하였다. 과제가 모두 끝나면 답안지를 거두고, 실험자는 아동들에게 정답지 맨 끝에 자신이 몇 개나 맞았을건지 예상 기대수를 적어보도록 하였다.

다섯째, 하루 지난 후 피험자들을 다시 불러 차례

맞추기 과제의 수행결과를 통보해준 뒤에, 과제성적에 대한 여러 가능한 원인이 적힌 귀인질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각 집단내 상위 50% (전체 10문제 중 6개 이상 맞춘 집단)에 해당하는 피험자에게는 성공 귀인질문지를, 그리고 각 집단내 하위 50% (전체 10문제 중 5개 이하 맞춘 집단)에 해당하는 피험자에게는 실패귀인 질문지를 나누어 주어 각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지적능력에 있어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t_{90}=-5.77, p<.01$), 정상집단 아동들이 ADHD 아동들보다 더 우수한 지능을 나타내었다. 정상집단의 지능지수 범위는 101-137이었고, ADHD 집단의 지능지수 범위는 80-133이었다. ADHD 집단과 정상집단은 '단축형 Conners 척도'에 의해 구분되었는데, ADHD 집단의 Conners 점수 범위는 17점- 29점이며, 정상집단의 경우는 0점-8점이었다. 또한 우울 점수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매우 유의한 차이 ($t_{90}= 5.53, p<.001$)가 있었는데, ADHD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을 보고하였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특성

	ADHD집단 (N=40)	정상집단 (N=40)	t
연령	10.55 (0.63)	10.84 (0.68)	-1.92
KEDI-WISC	102.45(7.33)	110.89(6.93)	-5.77**
(언어성 지능)	100.75(5.57)	108.57(5.91)	-4.83**
(동작성 지능)	103.23(6.96)	113.79(4.92)	-6.21**
단축형conners 척도(교사용)	22.47 (3.80)	3.24 (1.94)	7.82***
우울점수(CDI)	17.95 (7.79)	10.18 (3.78)	5.53***

()안은 표준편차 ** p<.01 ***p<.001

평가도구

1) 단축형 Conners 평가척도 (Abbreviated Conners Parent-Teacher Rating Scale- Revised : ACRS) : ADHD 아동의 주요한 증상이 되는 행동적 문제를 부모와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Conners (1978)가 10

문항으로 축약하여 개정한 것을 국내에서 오경자, 이해련 (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위 평가도구는 0-3점까지의 4점 척도로서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0-30점이고 점수가 클수록 문제행동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용 Conners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번안한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지수가 .92이다.

2)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 Kovacs 와 Beck (1977)의 성인우울검사 (BDI) 아동용 수정판으로 조수철 (198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DI는 만 8세-만 13세의 아동을 위한 것이며,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3개의 서술문중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서술문 1개를 골라 표시한다. 반응은 우울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0점-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아동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DI의 신뢰도는 Cronbach α 지수가 .76이었다.

3) 차례맞추기 과제 :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조작하기 위한 실험 과제로서 아동용 개인지능 검사 (KEDI-WISC)의 차례맞추기 소검사가 사용되었다. 검사 실시후 긍정적 및 부정적 정보귀환을 하도록 하여 성공과 실패 경험을 유도하였다. 이 소검사는 전체로의 계획있는 통합능력과 인과관계 파악능력 및 사회적 상황 파악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Zimmerman, Woo-sam & Glasser, 1973), 그 과제 성격상 과제의 성공, 실패가 수행시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적합한 과제로 판단되었다.

4) 귀인질문지 (Weiner, 1974): 실험에 참가한 아동들이 차례맞추기 과제의 결과인 성공과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을 어디로 귀인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성공과 실패의 귀인질문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피험자들은 자신의 수행결과를 해석하는데,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등의 4요인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성 (일반적-특정적)

을 재는 문항은 성인용 귀인질문지 (Seligman, Abramson, Semmel & von Baeyer, 1979)에서 사용된 바 있는 것을 아동에게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등의 4요인은 5점척도 (아니다 1-----그렇다 5)이며, 일반성은 4점척도 (특정적 1----- 일반적 4)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손상의 근거가 되는 내적-외적 귀인 평가는 각 피험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러한 평가는 내적귀인 (능력, 노력)의 합에서 외적귀인 (과제난이도, 운)의 합을 뺀으로써 계산된다. 이와 같이 점수를 변형시키는 것은 피험자가 내적귀인 문항과 외적귀인 문항에 대해 동시에 높은 평정을 하는 경우, 엄격하게 어느 쪽으로 귀인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 과

1.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기대

ADHD 집단과 정상집단과의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제수행, 예상기대수와 실제점수의 차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은 과제 수행에 대한 예상 기대수 ($t_{95}=1.43, p>.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두 집단은 예상기대수와 실제점수의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_{95}=2.58, p<.05$).

2.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귀인

1) 긍정적 정보귀환을 받은 경우

ADHD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t_{95}=5.53, p<.001$) 것으로 보이므로, ADHD집단이 과제 수행결과에 대해 부적응적인 귀인양식을 나타낸다해도 이것은 그들의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기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의 귀인양식의 차이가 우울과 관련없이 ADHD 집단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울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 분

표 2. 수행에 대한 기대, 실제점수, 예상기대수와 실제점수와의 차이

	ADHD집단 (N=40)	정상집단 (N=40)	t
수행에 대한 기대 ^a	76.03 (17.79)	70.08 (11.38)	1.43
실제수행점수 ^a	51.05 (19.56)	57.37 (14.83)	-1.59
기대수 - 실제점수 ^b	28.95	19.21	2.58**

()은 표준편차 ** p<.05

a. 수행에 대한 기대수와 실제수행점수는 100점 만점.

b. 예상기대수에서 실제점수를 뺀 값의 평균

식(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두 집단은 성공적인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능력 ($F_{1,77}=5.47, p<.05$)으로 귀인하는 것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정상집단이 ADHD 집단보다 자신의 성공결과를 능력으로 더 많이 설명하였다.

표 3. 성공 귀환정보를 받았을 때의 귀인

	ADHD집단 (n=20)	정상집단 (n=20)	F
능력	11.05 (4.02)	14.21 (3.29)	5.47*
노력	14.47 (3.52)	13.89 (3.57)	0.05
과제난이도	14.26 (3.08)	14.52 (2.55)	0.67
운	8.58 (3.13)	9.47 (2.67)	0.32
내적-외적 ^a	2.68 (8.95)	4.11 (6.05)	0.48
일반적 ^b	2.16 (0.96)	2.26 (0.99)	0.10

()은 표준편차 * p<.05

a. 내적귀인의 합에서 외적귀인의 합을 뺀 점수.

b. 일반성의 범위는 1-4점, 점수가 클수록 다른 과제에 일반화시키는 정도가 큼.

2) 부정적 정보귀환을 받은 경우

자신의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부정적 정보귀환에 대해 ADHD집단과 정상집단간에 귀인양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역시, 우울점수를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HD 집단과 정상집단은 과제실패

에 대해 능력 ($F_{1,77} = 16.90, p<.001$)과 노력 ($F_{1,77} = 4.12, p<.05$)으로 귀인하는 것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 실패귀환정보를 받았을 때의 귀인

	ADHD집단 (n=20)	정상집단 (n=20)	F
능력	12.05 (5.06)	6.74 (3.36)	16.90***
노력	12.72 (4.82)	10.42 (4.59)	4.12*
과제난이도	8.44 (4.00)	8.58 (2.69)	0.19
운	9.67 (3.91)	7.63 (3.22)	1.96
내적-외적 ^a	6.67 (10.72)	0.95 (7.98)	6.61*
일반적 ^b	2.21 (1.23)	2.00 (1.00)	0.58

()은 표준편차 * p<.05 *** p<.001

a. 내적 귀인의 합에서 외적 귀인의 합을 뺀 점수

b. 일반성의 범위는 1-4점, 점수가 클수록 다른 과제에 일반화시키는 정도가 큼.

다시 말하면, ADHD 집단은 정상집단보다 실패결과를 자신의 능력부족과 노력부족으로 더 많이 귀인시켰다. 한편, 자존감 손상의 근거가 되는 내적귀인(능력, 노력)의 합에서 외적귀인(과제난이도, 운)의 합을 뺀 점수에서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은 내적-외적귀인 ($F_{1,77}=6.61,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즉, ADHD 집단은 정상집단보다 실패경험에 대해 내적인 요인에 귀인을 더 많이 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 보였다.

3. 귀인의 일관성 :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귀인과 재귀인 비교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귀인과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실시한 재귀인에 대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한 결과, 성공결과에 대해 능력으로 귀인하는 데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F_{1,19}=4.28, p<.05$).

즉, ADHD 집단보다 정상집단이 처음 귀인과 재귀인에서 성공경험을 자신의 능력으로 더 많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능력에 대한 처음 귀인과

표 5. 성공귀환정보를 받았을 때의 귀인 1과 귀인 2의 평균과 표준편차

	ADHD (n=20)		정상집단 (n=20)	
	귀인 1	귀인 2	귀인 1	귀인 2
능력	11.05 (4.02)	11.00 (3.97)	14.21 (3.29)	14.56 (3.50)
노력	14.47 (3.52)	14.20 (1.99)	13.89 (3.57)	14.92 (1.58)
과제난이도	14.26 (3.08)	13.20 (4.47)	14.52 (2.55)	14.11 (2.97)
운	8.58 (3.13)	8.30 (2.63)	9.47 (2.67)	9.67 (3.43)
일반성	2.16 (0.96)	2.40 (1.17)	2.26 (0.99)	3.00 (0.70)

()은 표준편차

재귀인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집단과 능력에 대한 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한편,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패결과의 능력에 대한 귀인에서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_{1,19} = 5.06, p < .05$). ADHD 집단은 정상집단보다 처음 귀인과 재귀인 모두에서 실패경험을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더 많이 설명하였다. 두 집단 모두 실패결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한 처음 귀인과 재귀인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집단과 능력에 대한 귀인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한편, 실패결과에 대한 귀환정보를 받았을 때, '운'에 대한 귀인에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집단 각각은 처음의 귀인과 재귀인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_{1,19} = 4.88, p < .05$). 그리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과 운에 대한 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F_{1,19} = 3.05, p = .075$) 나타났다. 즉, ADHD 집단은 실패에 대해 '운'으로 설명하는 경향성이 두번째 귀인에서 훨씬 줄어들었고, 반면에 정상 집단은 두번째 귀인에서 '운'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표 6. 실패귀환정보를 받았을 때의 귀인 1과 귀인 2의 평균과 표준편차

	ADHD (n=20)		정상집단 (n=20)	
	귀인 1	귀인 2	귀인 1	귀인 2
능력	12.05 (5.06)	11.33 (3.92)	6.74 (3.36)	6.69 (3.52)
노력	12.72 (4.82)	11.91 (3.79)	10.42 (4.59)	10.25 (2.87)
과제난이도	8.44 (4.00)	8.00 (3.30)	8.58 (2.69)	8.00 (2.58)
운	9.67 (3.91)	6.50 (3.68)	7.63 (3.22)	8.69 (2.78)
일반성	2.21 (1.23)	2.17 (1.03)	2.00 (1.00)	2.15 (0.80)

()은 표준편차

논 의

본 연구에서는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과제수행에 대한 기대와 실제점수의 차이, 그리고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귀인양식을 정상집단과 비교해 보았다. 또한 귀인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검사를 실시하여 처음의 귀인과 재귀인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집단은 정상집단과 마찬가지로 과제수행 직후 예상정답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는 학업실패, 학업적 부적응에도 불구하고 정상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수행을 예상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학업결손을 보상하려는 자기방어적(ego-defensive) 심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DHD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우울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정답수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은 우울한 아동과 정상집단의 과제수행에 대한 예상정답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임양화, 1989)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서 우울한 아동과는 달리, ADHD 아동이 나타내는 우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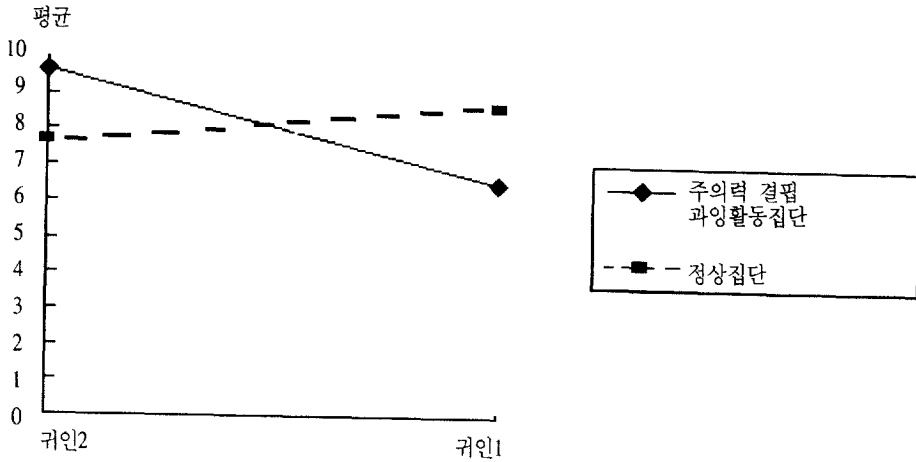


그림 1. 실패 경험뒤의 '운'에 대한 귀인 1과 귀인 2.

그들의 인지적, 행동상의 문제로 인해 파생된 이차적인 우울임을 알 수 있고, 현재의 과제 수행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기상 (self-image)을 강화하려는 것은 그들의 외현화된 행동상의 특징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예상정답수와 실제 수행점수의 차이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ADHD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자기감시 (self-monitoring) 과정이 부정확하고, 비현실적인 자기-지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성공결과에 대해 귀환정보를 받은 경우, ADHD 집단보다 정상집단 아동들이 성공적인 과제 수행결과를 자신의 능력에다 더 많이 귀인시켰다. 이 결과는 두 집단간의 우울점수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했을때에도 능력에 대한 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ADHD 집단에서 나타나는 우울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실패결과에 대한 귀환정보를 받은 경우, ADHD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능력, 노력으로 귀인을 더 많이 하였다. 역시 두 집단간의 우울점수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분석했을 때에도 ADHD 집단 아동들이 자신의 과제수행에서의 실패경험을 능력부족과 노력부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능력, 노력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에다 실패경험을 귀인시키는 부적응적인 성향은 ADHD 아동들의 낮은 자

존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귀인편향은 우울로 인한 인지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ADHD 아동들의 일차적 증상인 인지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누적된 부적응적인 학습태도와 낮은 학습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ADHD 아동들의 귀인형태는 우울한 집단에서 보여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했던 ADHD 아동들은 과제수행에 대한 귀환정보를 받기 전에 자신의 수행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행결과에 대한 귀환정보를 받고 나서는 우울집단과 유사한 형태의 무기력한 귀인양식을 드러내 보였는데, 이는 ADHD 집단의 왜곡된 귀인편파가 우울집단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조직화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 참가한 ADHD 아동들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12세 이후)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들은 특정한 상황이 자기 자신의 행동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견하는 능력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미성숙과 더불어 그들의 학업적, 정서적 부적응으로 인해 야기된 우울이 청소년 초기까지 이어진다면 사건의 인과관계 해석능력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일주일 간격을 두고 실시한 재귀인에 있어서도 ADHD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자신의 성공결과를 능력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실패결과를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해석하였다.

주목할만한 것은 실패에 대한 귀환정보를 다시 받았을 때 두 집단에서 '운'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정상집단의 경우, 처음의 귀인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운'과 같이 외적이고 불안정한 요인이다 귀인을 더 많이 하였다. 이것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덜려는 의도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원인이다 귀인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DHD 집단은 처음의 귀인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실패결과를 '운'으로 설명하는 경향성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기 봉사적 귀인 편파(self-serving attribution bias)가 감소한 것으로써 이들의 부적응적인 귀인 가능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ADHD 집단과 정상집단간에 자기보고식 우울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ADHD 아동들이 주의산만, 충동성, 과활동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학급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문제아동으로 낙인이 되며, 이들은 학업과 사회적인 능력에서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의 정서상의 문제를 공유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그런데 ADHD 아동들이 보이는 우울성향은 실제로 우울한 아동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수행결과에 대해 정상집단과 다름없이 호언장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울과 같은 내현화된 문제를 통제했을 때 무기력한 귀인양식을 보인다는 것은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을 드러낸다고 보다는 그들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부적절한 학습태도와 저조한 학습수행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ADHD 아동들이 실패결과에 대해 능력부족과 같은 부적응적인 귀인을 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적 재훈련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무기력한 아동들로 하여금 통제가능한 원인인 노력에 대해 인지적으로 재구조화시켜 성공을

경험하게 한 결과, 동기와 수행에 있어서 유의한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Reid & Borkowski, 1987; Licht & Kistner, 1986)들이 이를 입증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귀인의 유형만 조사하였는데, ADHD 아동들의 특징상 과제를 빨리 포기하고, 특히 실패를 경험한 뒤에는 과제를 지속할만한 동기를 상실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차례맞추기와 다른 성격의 실험과제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한 다음, 다시 과제를 시작할 때 ADHD 아동들의 과제지속성 여부와 실패를 경험한 뒤 해결하는 정답수, 과제를 포기하는데 뒤따르는 정서상태등을 정상집단의 아동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ADHD 아동들의 자신에 대한 귀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 주고 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ADHD 아동들의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자기-지각을 좀 더 구체화된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유능성, 자기-가치감, 행동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ADHD 아동들이 정상집단보다 자기보고 측정치에서 더 우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상집단에 비해 자기검색과정이 부정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 내에서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집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ADHD 집단을 더 세분화시켜 우울과 같은 내현화된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집단과 외현적인 행동문제만 나타내는 집단을 구분하여 학업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귀인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후속연구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오경자, 이혜련 (1989). 주의력 결핍 과잉활동증 평가 도구로서의 Conners 평가척도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 135-142.

- 임양화 (1989).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최진숙 (1989). 신경 정신 의학. 28 (3).
- Biederman, J., Newcorn, J., & Sprich, S. (1991). Comorbidity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onduct, depressive, anxiety and other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 5, 564-577.
- Butkowsky, I. S., & Willows, D. M. (1980). Cognitive - motiva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varying in reading ability : Evidence for learned helplessness in poor 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 3, 408-422.
- Cantwell, D. P. (1987). *The clinical description of AD-HD individuals : Assesment and Intervention Techniques*, Minneapolis, MN.
- Hoza. B., Pelham, W. E., Milich, R., Pillow, D., & McBride, K. (1993). The self-perceptions and attributions of ADHD and nonreferred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 3, 271-286.
- Lahey, B. B., & McBurnett, K. (1992) Behavioral and biological correlates of agressive conduct disorder : Temporal stability. In D. Routh (Eds.), *The psychobiology of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Sarasota, FL.
- Licht, B. G., & Kistner, J. A. (1986). Motivational problems of learning-disabled children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reatment. In J. K. Torgesen & B. Y. L. Wong (Eds.),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on learning disabilities* (pp225-255). New York : Academic Press.
- McGee, R., & Share, D. L. (1988). Attention deficit disorder-hyperactivity and academic failure : Which comes first and what should be traeted ?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318-325.
- Milich, R., Carlson, C. L., Pelham, W. E., & Licht, B. G (1991). Effects of methyphenidate on the persist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oys following failure experienc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 519-536.
- Milich, R., & Okazaki, M. (1991). An examin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among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ed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 607-623.
- Milich, R., Landau, S. (1982). Socialization and peer relations in hyperactive children. In K. D. Gradow & I. Bialer (Eds.), *Advances in learning and behaioral disabilities* (Vol. 1, pp283-339). Greenwich, CT : JAI Press.
- Reid, M. K., & Borkowski, J. G (1987). Causal attributions of hyperactive children : Implications for teaching strategies and self-contr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3, 296-307.
- Seligman, M. E. P., Abramson, L. Y., Semmel, A., & von Baeyer, C. (1979).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242-247.
- Weiner, B. (1974). *Achivement motivation and attribution theory*. Morristown, N. J ; General Learning Press.
- Zimmerman, I. L., Woo-Sam, J. M., & Glesser, A. J. (1973). *Clinical interpretation of the WAIS*. N. Y. : Grune & Stratton.

Expectation of task performance and attributional styl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Children

Sora, Kim Kyoung Ja, Oh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1) expectation of task performance and 2) the attributional style of boy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with those of age matched normal control boys. ADHD group consisted of 20 boys in the 5th & 6th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with Abbreviated Conners Teacher Rating Scale (ACRS) score above 17. Another group of 20 boys in the same grade with ACRS score lower than 10 consisted Normal Control group. Two groups were given a modified version of picture arrangement subtest of KEDI-WISC in groups of 10. Following the task, ADHD & Normal Control group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 Success feedback group and Failure feedback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expectation of task performance. ADHD boys were less likely to attribute success outcomes to their ability than normal boys and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failure outcomes to their ability and effort than their counterparts. ADHD group was also less consistent than normal controls in their attribution. These results together suggest that ADHD boys showed negative bias in their attribution, particularly following failure experience, a cognitive bias often seen among depressed group. However, unlike depressed individuals ADHD group in the present study overestimated their performance, which indicates their negative cognitive bias might not be as organized as in the depressed group.